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을 의미하는 '3고(高)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와 기업 실적 둔화 속에 2023년은 투자자들에게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채권 등 인컴자산의 비중을 늘리고, 여유자금으로 성장주를 분할 매수 하라는 조언이 주로 나온다. 메트로신문은 1일 교보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NH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 11곳(가나다 순) 리서치센터장에게 2023년 증시 전망에 대해 물어봤다. (편집자주)

“코스피 ‘상저하고’… 이차전지·신재생에너지 등 유망”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하이투자증권 고태봉	키움증권 김지산	교보증권 김형렬	현대차증권 노근창	한화투자증권 박영훈	미래에셋증권 서철수	NH투자증권 오태동	한국투자증권 유종우	신한투자증권 윤창용	대신증권 정연우	하나증권 황승택
코스피 지수 전망	상고하저 (2050~2600)	상저하고 (2150~2700)	상저하고 (2200~2650)	상저하고 (2200~2570)	상저하고 (2000~2600)	상저하고 (2050~2600)	상저하고 (2200~2750)	상저하고 (2000~2650)	상저하고 (2000~2600)	상저하고 (2050~2640)	상저하고 (2050~2550)
투자 유망 업종	기계 자본재, 방산, 에너지	반도체, 이차전지, 방산	배터리·이차전지·소재, 바이오·제약	자동차·부품, 배터리·이차전지·소재, 반도체·부품	에너지, 소재, 산업재	이차전지, 신재생 에너지	반도체, 헬스케어, 신재생 에너지	경기방어주(은행주, 음식료, 건강관리), 반도체, 이차전지, 게임	수출주(조선, IT가전, 기계, 자동차, IT하드웨어), 방어주(통신, 필수소비재)	반도체, 이차전지	로봇(AI, 스마트팩토리), 원전
증시 위험 요인	기업 실적 둔화	경기침체 강도, 기업 실적 둔화, 연준의 최종금리 레벨 상향	스태그플레이션 심화	부동산 경기 하강 악영향, 자금경색 지속 여부	경기침체 지속	경기침체 지속, 기업 실적 둔화	미·중 갈등, 부동산 PF 디폴트 사태	부동산 PF 디폴트 사태, 기업 실적 둔화	스태그플레이션 심화, 신용위험 확대에 인한 금융 시스템 리스크 전이	인플레이션, 긴축 후폭풍	최종 금리 수준 도달 여부, 상반기에 몰린 회사채 만기

2023 증시 전망

◆코스피, 상저하고…“자금경색, 기업 실적 둔화 우려”

지난해 코스피 지수는 2900선에서 출발했으나,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기조와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며 2200선에서 하락 마감하는 '상고하저(상반기에 높고 하반기에 낮아짐)'의 흐름을 보였다. 올해 증시 전망에 대해서도 하이투자증권을 제외한 10곳의 증권사가 상저하고를 전망했다. 코스피 지수 예상 밴드 하단은 2000, 최상단은 2750으로 제시했다.

부동산경기 악화, 자금경색 지속 소비 둔화 등 기업실적 부진 예고

증권사 10곳 코스피 '상저하고' 전망 지수 예상 밴드 2000~2750 제시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022년 초부터 조정장세를 이어갔지만 유동성으로 인해 모든 것이 호황이었던 시기와 비교했을 때 아직 충분한 조정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연초 이런 기업들의 이익에 대한 프라이싱(가격 책정)이 진행되며, 증시는 최악의 상황을 겪은 후 반등을 모색하는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창용 신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도 “주당 순이익(EPS) 추정치 하락폭과 기간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EPS 추정치는 내년 2분기 말~3분기 초 저점을 형성하며, 지수 연 저점은 이익 저점 직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증시 위험 요인으로는 부동산 경기 악화와 자금경색 지속 여부, 기업 실적 둔화 등을 주로 꼽았다.

오태동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023년 부동산 경기 둔화가 심화되고 아파트 미분양률이 상승할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

낸싱(PF) 사업성 저하가 불가피하다”며 “일부 사업성이 낮은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 P) 중심으로 투자 선호도 재악화가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고금리 환경 여파로 부동산 시장 내 자금 흐름이 막히면서 일부 업체들의 도산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라며 “게다가 글로벌 수요 둔화로 한국의 수출이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또 내수 소비도 회복세가 지연되는 상황이라 기업실적은 당분간 저조한 수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미국연준(연방준비제도·Fed)의 최종금리 수준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창용 센터장은 “미 중앙은행의 정책변화와 기업이익 변화를 가장 주목해야 한다”며 “주식시장 반등을 위해서는 금리 하락이 절실하다. 연준 통화정책 전환 여부와 시점이 변수인데, 2023년 2분기가 최종금리 도달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그 직전에 주식 시장 반등을 모색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코스피 상승 기회 요인에 대해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국내외 긴축 및 금리 인상 압력 완화와 중국 등의 코로나19 방역 정상화로 인한 공급망 병목 현상이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3년 투자 유망 업종은?

2023년 투자 유망 업종으로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이 꼽혔다. 올해 중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으며, 주가가 하락해 매수 타이밍으로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단, 본격적인 주가 반등은 하반기부터 이뤄진다는 전망이다.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시가총액 최상위 업종인 반도체의 경우 2023년 하반기부터 한국 증시의 본격 반등세에 집중적인 수혜를 받을 업종이다”며 “이차전지는 지난해 11월 이후 테슬라발 악재, 밸류에이션 부담 등으로 주가 조정 국면에 있었으나, 이로 인해 매수 관점에서의 진입 매력도 오려 확대되고 있다. 장기 실적 성장성이 유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태동 센터장은 “반도체는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제 중심축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수혜가 예정된 분야이며, 현재 반도체 업황 다운사이

클로 인해 가격 부담이 크지 않다”며 “메모리 반도체 다운사이클은 올해 2분기 저점을 찍고 3분기부터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가는 업황에 6개월가량 선행하므로 반도체 관련 업체 매수 적기는 지금”이라고 밝혔다. 이어 헬스케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도 유망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역사적으로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에서 수축 국면이 진행되는 경우 저변동성과 가치주, 고배당 전략이 유효하다고 조언했다.

유종우 센터장은 “상반기에는 고금리 환경하에서 안정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은행주에 주목해야 한다”며 “경기 침체국면이 지속되므로 음식료, 건강관리 등 경기방어주에 대한 관심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본격적 주가 반등 하반기부터 예상 유망업종 반도체·이차전지 등 꼽아

금리상승 국면 레버리지 투자 지양 인컴자산 늘리고 성장주 분할 매수

서철수 센터장은 “상반기에는 침체 우려로 경기 민감 섹터들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차전지, 신재생 에너지 등 경기와 큰 상관없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면서 금리 하락의 도움을 받는 업종이 선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외에도 황승택 센터장은 로봇(AI, 스마트팩토리)·원전을, 윤창용 센터장은 수출주(조선, IT가전, 기계, 자동차, IT하드웨어)와 방어주(통신, 필수소비재), 김형렬 교보증권 센터장은 배터리, 이차전지, 소재, 바이오·제약에 관심을 가지라고 조언했다.

◆‘레버리지 이용한 투자 지양·분할 매수 추천’

전문가들은 하락장 속 대체 투자처로 예·적금, 채권, 금(金), 달러 등을 추천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기간에는 주식 투자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인컴자산의 비중을 늘리고, 여유자금으로 성장주를 분할 매수 하라는 조언이다.

황승택 센터장은 “현재 유망한 투자처를 찾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내 투자금을 지킬 수 있는 방향이 유리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예·적금과 우량한 기업의 단기 회사채 매수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서철수 센터장은 “장기적·자산관리 관점에서 투자가 필요하며, 국내외 우량자산 분산투자가 정석”이라며 “금리가 고점에서 하락하는 구간이므로 연초에는 채권 등 인컴자산 비중을 늘리되, 주식이 상승 국면으로 전환 조짐을 보이면 주식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근창 센터장은 “하반기부터 한국 및 글로벌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채권 금리도 빠르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금리 투자 매력 및 채권금리 하락에 따른 자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한국 국채 10년 물’에 주목하라”고 밝혔다.

또 주식의 경우 변동성을 활용한 분할 매수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유종우 센터장은 “이례적인 금리 상승 국면에서 자금 조달 비용이 매우 높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며 “재무적으로 건전성을 확보한 우량 종목과 산업 내 1등 종목에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풍문에 따라 투자하기보다 기업의 펀더멘털을 보고 장기 투자 관점에서 종목에 접근할 것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오태동 센터장은 “아직 경기침체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으며, 한계기업들의 신용리스크 부각 등 잔존한 불확실성이 남은 상황에서 일정 부분의 여유자금은 가지고 있는 편이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하기 용이할 것”이라며 “상반기에는 채권, 하반기에는 주식 비중 확대를 권고하되, 여유자금을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연우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당분간 유동성 중심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지만 2분기 이후에는 한국 주식 30%, 신흥국 주식 10%, 미국 주식 20%, 리츠 10%, 회사채 20%, 장기국채 10%로 분산해 투자자산을 다각화하고,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변동성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